

어린이 책꽂이



▲피아노를 쳐 줄게=음악회 준비를 하며 좌절을 겪고 피아노를 멀리했던 주인공 개시는 어느 날 아픈 동생을 위해 진심을 담아 피아노를 연주하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피아노로 인한 좌절과 아픔,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마음의 문을 새롭게 열어젖힌 아이의 마음을 환상적인 그림과 함께 담았다. <사계절·9000원>



▲꼬마 너구리 삼총사=제1회 참바어린이 신인문학상 수상작가인 이반디의 첫 동화집. '꼬마 너구리 삼총사'를 비롯해 너구리 삼총사 '짱이', '똥이', '똥이'를 각각 주인공으로 한 연작동화 3편으로 구성됐다. 너구리를 주인공으로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나 숲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명랑하게 그려냈다. <참바·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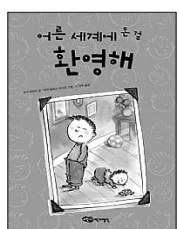
▲녹색 지구를 만들어요=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환경전문가 정희성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겨울에 내복입기 등 아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시바의 눈물=스페인 작가 세사르 마요르키의 소설. 15살 소년 '하비에르'가 딸만 넷인 이모네 집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며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주리 기법을 통해 풀어냈다. 사랑의 강렬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푸른숲주니어·9800원>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요?=크리스마스를 맞아 할아버지에게 모인 톰의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톰의 모습이 세상하고 재미있게 표현됐다.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알게한다. <시공주니어·7000원>



▲어른 세계에 온 걸 환영해=아이들 세계에서 형제는 동반자이자 경쟁자이다. 동생이 태어나 사랑과 관심을 뺏긴 형 풀리아이는 어느 날 부모님께 혼나고 꾸중받는 동생을 발견하게 되고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렸다. 형제간의 우애가 발전하는 과정을 일상 속에 녹여 재미있게 표현했다. <어린이작가정신·8500원>



▲상어대기차=어린이시절 한번쯤은 상상해봤을 기상천외한 대결, 상어대기차의 대결을 소재로 했다. 상어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와 기기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의 상상력이 대결하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엉뚱해 보이지만 논리성을 잃지 않는 모든 상황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미래아이·9000원>

▲생명의 마법사 유전자=모든 생명체의 몸 속에 있는 '유전자'(DNA)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도록 알찬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유전자'로 변신한 '아주진 과학자'를 따라가면서 그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 속을 여행해보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전자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준다. <웅진주니어·9500원>

느긋한 해학과 깊은 애정 담긴 삶의 예찬



풍경의 깊이 사람의 깊이
최일남 지음

“역사가 공공의 재산이라면 개개인의 삶은 필경 사람에게 대한 기억과 사연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따라서 잠 안 오는 밤이 적적하지 않다. 시척지근한 회상에 갈수록 느끼는 능청을 입힌 까닭이다. 머릿속에 가득 저장해 둔 인물을 무작위로 골라 수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작가의 말중)
인문인 출신 원로 소설가 최일남(78·사진) 씨가 세상살이에 대한 느긋한 해학과 깊은 애정에서 솟아나는 삶의 예찬을 담은 산문집 '풍경의 깊이 사람의 깊이'를 출간했다. '어느 날 문득 손을 바라보다' 이후 4년 만에 펴낸 이번 산문집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계간 '현대문학'을 비롯해 각종 매체에 발표한 칼럼과 에세이를 모아 엮었다.



“그러나 괜찮다. 괜찮다. 눈곱만큼도 섭섭하지 않다. 젊음은 그렇게 양양한 앞길을 개척하는 거다. 나는 줄창 품고 지낸 구닥다리 노래와 옛정을 계속 누릴 작정이다. 어차피 신정(新情)을 탐할 시간도 없으므로.”(70쪽)
책에 실린 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 이야기다. 작가는 책에서 사람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삶을 들여다본다.
50여년 사귀어온 최정호 울산대 석

좌교수의 교수 높은 안경을 떠올리고, 그 안경이 “그만의 통찰력을 증폭시키고 남다른 레토릭을 가다듬는” 기능을 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벗을 치하한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소운의 수필집 '묵근통신'을 통해 그의 일본살이 30년 삶을 회고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버티게 한 것이 모국을 향한 열정과 의지였으리라고 가늠해 본다.
또한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남다른 평문에서 평론가의 부지런한 공부와 노력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한다.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의 에피소드와 희대의 걸출한 기자이자 정치가였던 '인물'에 대해 다른 글도 여러 편이다.
날선 풍자와 맵한 비판으로 이름을 날린 그림에도, 문단과 언론계에서 통고통락해 온 동료들을 겨냥해서는 필치가 한없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는 경계를 말하되 논하지 않았다. 재미진 동서양의 예를 이리저리

들어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다가, 슬그머니 담대 경제의 초점을 딱 짚는 수법이 싹뻑하여 기분이 좋았다.”(정운영)
“그때그때 당찬 글의 내용과 더불어 남성적 글쓰기의 활달한 맛을 느끼게 만들었다. 유난히 많은 질문형, 호소형 제목에서도 그런인상을 받게 늘, 못지않게 섬세한 정서가 뒤를 받쳐 고민에 찬 주장이 간결한 울림으로 매번 실쾌하고 감동적이다.”(김중배)
작가는 조세형·김중배·정운영·이규태씨 등과 함께한 추억과 그들의 필법에 대한 인상 등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한편, 책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괄호찬 시인의 헌시 '그리운 청년, 최일남'은 작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작가가 '생광스럽다'고 표현한 송영방씨의 그림은 책과 잘 어울리고 보는 재미를 더한다.
<문학의문학·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족의 정 묻어나는 진솔한 자기성찰

반성-되돌아보고 나를 찾다
김용택·박완서 외 지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의 정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나왔다. '반성-되돌아보고 나를 찾다'는 김용택·박완서·안도현·이재무·이승우·구효서·장석주·서하진·서석화·차현숙·고형렬 등 신예부터 원로까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20명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모은 산문집이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가슴 뭉클한 사랑을 전하는 내밀한 고백부터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 이 시대를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까지 다양한 반성을 들려준다.
뇌졸중으로 요양 중인 어머니가 매일 오전 10시 걸어오는 안부전화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어머니의 문안전화'(서석화)와 '엄마의 나쁜 딸'(차현숙), '사소한 계란말이의 기억'(김이은)은 가슴 찡한 모녀간의 정을 다룬다. 은미희의 '내 기억 속의 음파'와 장석주의 '반성은 자기 돌아봄이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다.
안도현 시인은 '이까저 풀 정도야'에서 원고자 밀려 일주일 가까이 발을 돌리다 못한 사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자라 싹새했다는 농사의 경험에서 배운 겸손을 소개한다.
그 외 고운기의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한 반성', 우광훈의 '너무나 안전했던 대구', 공예린의 '오르막과 곡의 바늘', 김종광의 '휴강한 죄' 등 다양한 경험과 성찰 속에서 반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수록됐다.
<다숲·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치 독일의 역사와 몰락 과정 소개

독일 제3제국의 비극
안진태 지음



히틀러는 신성로마제국을 '제1제국', 1871년 비스마르크에 통일된 독일 제국을 '제2제국', 그리고 자신이 수립한 나치 독일 체제(1934~1945년)를 '제3제국'이라고 칭하며 전년의 영속을 꿈꿨다. 그러나 나치독일은 2차 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을 초래하고 12년4개월 만에 붕괴됐다.
안진태 원주대 교수가 쓴 '독일 제3제국의 비극'은 나치독일의 역사와 몰락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우선 베를린 올림픽을 주최한 히틀러가 어떻게 스포츠제전을 왜곡해 독일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했는지 고찰한다. 사상 처음 이루어진 성화 봉송의 유래도 살펴본다.
이외에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패배를 여론조작을 통해 승리로 둔갑시킨 사례, '어머니'로 축소해 버린 여성상, 유대인 학살, 철교를 폭파한 한 병사(솔라게터)의 영웅화, 예술과 학문의 나치즘 수용 등 제국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
저자는 “제3제국은 조직력, 선동력을 두루 갖춘 히틀러의 '카리스마 권력'에 그의 측근들이 동조해 만들어낸 '지도자 신화'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3제국은 국가주의, 대중 통제를 위한 언론 조작, 극우민족주의, 인종우월주의, 현대 과학기술의 잘못된 사용 등을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까치·2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종교인 대화 모임 지음



한국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특이한(?)나라이다.
종교간 조화와 공존은 자기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큼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간의 '대화'는 우리사회의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종교간 대화의 결실이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지난 1994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씨튼연구원이라는 '종교인 대화모임'에서 20차례 만나 대화했던 내용을 정리했다.
이들은 각 종교들이 가지는 유사성과 차이를 토론과 대화로 진솔하게 풀어내며 “종교끼리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려면 자기종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종교도 정확하게 이해해 맹신과 배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시 대화에 참여했던 이들은 불교학을 전공한 개신교 신자인 김희성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가톨릭 수녀인 김승혜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조계종 비구 스님인 종범스님(종양승가대 총장), 원불교 교무인 양은용 원광대 불교학과 교수, 개신교 목사인 이정배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근덕 성균관대 등 11명이었다.
<운주사·2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Children holding signs that say '초록우산' (Green Umbrella). Text: 어린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작! (Share your love to children!).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Gwangju Child Protection Center). 1577-1391, 062351-3513.